30과 놋뱀을 바라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주시고 또한 이 땅에서 주님의 귀한 전도의 사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 할수 있도록 하나님 더욱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주의 많은 잃어진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에게 교사의 직분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직분을 귀중하게 여기고 또한 직분을 맡은 자로써 일을 잘 감당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한 모든 일에 주님께 합당히 행하여 더욱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맡겨진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고, 또한 구원의 확신을 얻게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써 온전케 양육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름성경학교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손길에도 주님이 도와주셔서 이번에도 많은 학생들이 참석하여서 모두 다 구원함을 얻을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많은 어려움과 또한 불편함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그 모든 것 친히 준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 하나님께만 간절히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고린도전서 10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입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9.저희 중에 어떤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10.저희 중에 어떤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11.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12.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초등부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주님안에서 평안하신지요

저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또한 수양회를 준비하는데에 기도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초등부를 맡고있는 우리 선생님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한 자기 일을 돌아보고 우리 학생들의 영혼을 돌아보는 선생님들 참으로 수고 많으십니다.

특별히 초등부 특성이 그 시기에 근면성을 키워야 된다고 말합니다

근면성은 어떤 과업을 완수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그리고 부지런함이나 집중력이나 지구력의 성품을 말한다 라고 합니다

특별히 학생들이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되는데

특별히 초등부때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면성은 아이들이 성취감을 통해서 그리고 그 과정과정을 칭찬해주는 그 칭찬을 통해서 아이들이 더욱 근면성을 키워가고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비젼을 품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특별히 선생님들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씩 하나씩 순종하는가운데 더욱 감사하는 아이들이 되고 또한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아이들이 체험할수 있도록 의의 말씀을 경험할수 있도록 지도바랍니다

그리고 너무나 높지 못한, 높지않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적당한 그 목표를 정하면서 그것을 하나하나 성취할수 있도록 하는것도 근면성을 키우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 28과 놋뱀을 바라봄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가데스바네아 사건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땅

정탐꾼을 12명을 보냈죠? 40일동안 정탐하고, 그중에 10명은 가나안땅을 정복하는 것을 반대했고 그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가나안 땅을 취하자 라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다수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원망하며 불평하는 , 그로 인하여서 40년 광야 생활을 겪게되는 그런 사례들을 봤습니다.

특별히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위해서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공과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이 왜 광야에서 그런 일을 겪었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원수는 돌에 새기고 또한 은혜는물에 새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좋은 일은 속히 잊어버리고 또한 좋지 않던 일들은 오랫동안 기억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은혜를 입을 때에는 감사하더라도 손해를 당하게 되면 바로 태도를 돌변하는 그런 상대방을 비난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광야길을 가다가 그 길이 험하므로 인해서 백성들이 불평하고 결국 그 불평은 진멸되는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비극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한 이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광야 40년 가까이 지난 그 시점에 와서도 사소한 일에 불평과 그리고 원망하는 습성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길을 어떤 태도로 가야하는지 한번 배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민수기 21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입니다.

민수기 21장은 책갈피를 좀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4절

4.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좇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오늘 배우실 공과내용중에 자 사건의 발단이 되는 내용입니다

백성들이 길로 인하여서 마음이 상했죠

그리고 원망하는 내용입니다.

가데스바네아에서 반역 사건이 민수기 14장에 기록되어있습니다

자 이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회중하여서 40년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38년의 세월이 지난 이 시점에 호르산에서 시작해서 홍해길로 좇아서 에돔땅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백성들은 그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습니다

모세가 에돔왕에게 왕의 대로로 지나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절을 당했고 험하고 물도 없는 길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민수기 20장 14절 보겠습니다.

14.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의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15.우리 열조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열조와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16.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17.청컨대 우리로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나 통과하지 아니하고 우물 물도 공히 마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왕의 대로로만 통과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좌편으로나 우편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 하라 하였더니

자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18.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통과하지 못하리라 내가 나가서 칼로 너를 맞을까 염려하라

21절 보겠습니다.

21.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의 그 경내로 통과함을 용납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자 에돔땅은 원래 험준한 사막과 바위로 이루어진 땅입니다.

완악한 백성들은 이러한 사실 때문에 더욱더 맘이 상했습니다.

자 그후에 백성들의 반응은 원망과 불평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민수기 21장 5절 보시겠습니다.

5.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사실 광야에서의 그 고난은 그들의 불신함으로 인해서 자초한 것입니다.

전날 정탐꾼의 말을 듣고 믿음으로 전진하였다면 38년전에 이미 가나안땅에 들어갈수 있었습니다 .

그들은 38년동안 고난당하는 중에서 불신과원망의 죄를 회개하고 새롭게 변화되어야 했으나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계속 불신함에 찌들어서 불평과 원망만을 되풀이 했습니다.

광야에서 38년동안 생활한 사람들에게 광야의 길이 험하고 힘들다 하는 것은 원망의 이유가 될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이 불만, 이 불만이 이처럼 사소한 일에도 원망과 불평을 하는 습성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오늘의 불행은 전날의 은혜를 망각하는데서 생깁니다.

그들의 불행은, 그리고 그들의 불평은 하나님의 은혜까지 경멸히 여기는 그런 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뒤에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의 길이 험하다는 것 때문에 당장 죽을 것 같이 아우성 쳤습니다.

이들의 원망은 더욱더 발전했죠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킨 것 까지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들을 많이 체험했지만 그들은 그것들의 모든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사실 이들이 이렇게 광야를 행진할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그들의 패역한대로 처벌하지 않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광야생활동안에 어땠습니까?

불뱀과 전갈과 또한 많은 위험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의도적으로 곡해하고 원망만하고 있는 것이였습니다.

길에대한 불평은 출애굽과 광야생활에 대한 불평으로 점점 발젼했죠?

다시 양식과 물에대한 불평으로 점점 그 폭이 넓어져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처럼 양식도 물도 없는 광야에서 이제까지 그들을 먹여살렸습니다만, 그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또한 원망했습니다.

그뿐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물인 만나를 박한 식물이라 라고 악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것이 싫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께서는 출애굽 이후로 백성들에게 하루도 그 양식 내려주시기를 잊으신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는 그들에게 비웃음과 불평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를 비웃고 악평했던 것입니다

이와같은 죄악에 대해서 시편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78편 41절입니다.

시편 78편 41절. 4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40.저희가 광야에서 그를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번인고

같이 읽겠습니다.

41.저희가 돌이켜 하나님을 재삼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격동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길로 인해서 그전에 가지고 있던 하나님께 향한 그런 불만들을 표출하고 원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재삼 시험하게 됐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습니다.

민수기 21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민수기 21장입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6.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시므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사십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어도 그들의 심령은 조금도 새로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묵과하지 않으셨습니다.

불뱀들을 보내어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

자 사막에 불뱀들. 아주 치명적인 독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물리면 불에 타는 듯한 통증을 느끼게 됨으로 불뱀이라고 불렸다 합니다

갑작스런 뱀의 출현으로 인해서 백성들은 온통 난리가 났을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순식간에 원망하던 자들이 불뱀에 물려죽었습니다

결국 모세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또다시 용서의 기도를 드렸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놋뱀을 만들어 장대위에 달라 라고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민수기 21장 7절입니다.

7.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하므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8.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뱀에 물려 죽게된 그 상황을 우연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나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놋뱀을 쳐다볼수 없었습니다

절박한 상황을 아는 사람만 쳐다봤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쳐다본 사람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심한 상처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다 나음을 얻었습니다.

당장 죽어가는 사람에게 놋뱀을 쳐다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어보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겸손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라면 이것은 어려운 일도 어리석은 일도 아니였습니다

가장 간단하고 쉬운것이였습니다

우리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예수님을 믿으세요, 십자가를 믿으시면 죄를 다 용서 받습니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십자가가 어떻게 죄를 다 용서할수 있냐.

그래서 우스워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8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8.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고린도전서 1:18)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비밀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하신일을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천국갈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뱀에 물려 죽게된 이 사람들 놋뱀을 쳐다보면 살리라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들은 쳐다봤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은 보지 않고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유일한 구원의 길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놋뱀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놋뱀자체에는 사람을 구원할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일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놋뱀자체에 무슨 신령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놋뱀을 숭배하고 또한 놋뱀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놋뱀을 유다왕 히스기야때까지 가지고 다니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이 놋뱀을 가루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놋조각에 불과하다고 해서 산산조각을 내고 누으스다이?(아무리 들어도 안들림)라고 일컬었습니다.

 놋뱀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놋뱀을 쳐다본 즉 산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치료할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치료는 물린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을 믿는 믿음에 있었습니다

장대에 달린 놋뱀은 십자가에 달려 우리죄를 위해서 심판을 받으신 예수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놋뱀을 보고 사는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놋뱀을 만들어 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장 비참한 죄인의 모습으로 심판을 받아 십자가에 달린 그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가장 저주받은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으며, 그 일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14절입니다.

14.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자 이말씀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서 하늘과 땅 사이에 들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받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하십니다.

1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마음으로 쳐다볼 때 내 죄가 거기서 심판을 받았고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가 정복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믿는 순간에 죄가 깨끗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구원을 받을수 있는 길도 예수님을 믿는 일 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해서주신 구원의 유일한 길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죽음을 앞에 둔 이 강도에게는 그들의 유일한 구원은 무엇이냐, 예수님 밖에 없었습니다.

자 절망과 고통 중에서 모든 것을 잃고 마른 막대기와 같았던 혈류병 걸린 여자에게도 예수님 밖에는 다른 소망이 없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의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많은 이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약하고 생기가 없는 것은 체험이 없어서 그런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체험이 신앙생활의 승리를 보장해주진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주 잊어버리는 그런 습관을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를 잊을 때 사소한 일에도 우리가 불편하게 되고 원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욱 발전하면 결국에는 불신함의 죄인처럼 타락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광야의 여정은 그리스도인의 세상 살이로 예표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험난한 길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상징적으로 교훈해주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일들을 그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와같은 경우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향한 그런 사랑과 감사가 없을때입니다

이처럼 오늘의 불평은, 그리고 오늘의 원망은 전날의 은혜를 망각하는 데에서 나타나는 그런 폐단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8절입니다.

18.광야에서 약 사십 년간 저희 소행을 참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체험하고도 현제의 그런 작은 어려움 때문에 그 은혜를 잊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그럴수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불신함의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할수 있습니다.

그와같은 경우에 원망을 계속하면 더욱더 사단의 공격 으로 불뱀의 독같은 그런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원망하는 마음이 들때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분의 고난과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사랑을 바라보면 원망 대신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또 놋뱀을 바라보고 그리고 죽음에서 산자는 다른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내버려두고 살면 안됩니다.

모세가 놋뱀을 장대에 달고 쳐다보라 그랬죠, 쳐다보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족이나 이웃이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자기 고집과 불신으로 죽어가는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야 됩니다
이것이 산자의 책임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구원을 받기위해 내가 해야될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불뱀에 물린 그 사람들, 장대에 높이 달린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게끔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 쳐다본 사람들, 살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 놓으셨는데, 이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잘못 알고 자기 열심 으로 자기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쳐다보고 또한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쳐다보라라고 전해야 됩니다.

하계수양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참석할겁니다.

우리는 현제 이스라엘의 회복되는 것을 보고 마지막 때 되어질 징조들이 다 이뤄진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목격한 세대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분명히 주님이 오십니다.

이번 수양회가 마지막이 될수도 있습니다.

또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준비중에 여러모로 시간과 노력을 기울일줄 압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번에 참석할 영혼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구원을 받게 하심을 믿고 기도하며 준비해야 됩니다.

손유희를 준비하고 찬율을 준비하고 암송을 준비하고 시청각을 준비하고 또한 기타 여러 부문으로 분반준비를 하시는 선생님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믿어야한다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수양회를 준비하며 또한 수양회를 맞이하는 선생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 죄로 인해서 반드시 죽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도 긍휼히 여겨주셔서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을 예비하시고 놋뱀을 쳐다보면 살게끔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아무공로 필요없이 그 말씀을 믿고 쳐다본 사람들은 살았지만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또한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아간 사람들은 결국

은 죽게되었습니다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2000년 전에 해놓았던 그 구원의 일을 사람들은 모르고 지옥에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마땅히 모세가 장대위에 놋뱀을 높이 달고 놋뱀을 쳐다보라고 부르짖었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 주의 잃어진 영혼들에게 그리고 학생들에게 주님을 쳐다보며 구원을 받기를 외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수양회를 준비하는 그 손길에도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마음 들여서 준비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에도 많은 영혼들이 참석하여서 모두다 구원함을 얻을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